

광주·전남 혁신기업을 찾아서: 인디제이



감정을 이해하는 AI, 인간과 공존할 미래 설계하다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까지 읽어내려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표정과 목소리, 말의 뉘앙스와 맥락 속에 담긴 감정을 해석하고, 나아가 관계의 흐름까지 이해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다.

기술은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고, 그 경계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감정 인지 AI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인디제이의 정우주 대표는 “앞으로의 AI는 지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디제이는 2019년 설립된 감정 인지 AI 기업으로, 기존의 언어 기반 AI와는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디제이가 감정 AI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퍼지컬 AI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기계들이 늘어날수록, 단순한 명령 수행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는 “휴머노이드나 가정용 로봇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AI는 결국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AI는 편리함을 넘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AI가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인디제이의 대표 기술인 ‘눈치 AI’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다.

기존의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데 집중한다면, 눈치 AI는 감정을 인지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를 모델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대표는 “현재의 AI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는 사람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축적되고 변화하는지를 반영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관계형 AI’라는 개념에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호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인간의 기억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 대표는 “사람은 모든 경험을 동일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며 “감정이 강하게 개입된 사건일수록 더 오래 남고, 이후의 판단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러한 가중치 구조를 AI에 적용해 보다 인간에 가까운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접근이 가능한 배경에는 방대한 데이



정우주 대표



인디제이의 AI 비서가 차량 내 상황을 분석해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정 인지·관계형 인공지능 ‘눈치 AI’ 개발 감정 데이터 31억 건 확보...수치화 분석도 국내외 기업 협업 확대로 적용 범위 넓혀

터 축적이 있다.

인디제이는 약 31억건, 150테라바이트 규모의 감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 표정, 생체 신호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멀티모달 형태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감정 분류를 넘어, 감정의 강도와 변화, 그리고 맥락까지 수치화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눈치’는 이미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AI 컨택센터에서는 고객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상담사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차량 탑승자의 상태를 인

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감정 인지 기술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실제 활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정 대표는 “감정 인지는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AI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상태와 감정을 읽고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2024년 진행된 'CES 2024'에서 인디제이 직원이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눈치 RAG 2.0’ AI 이미지

현재 인디제이는 국내를 넘어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기술 적용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자동차, 가전,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감정 인지 AI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일 서비스가 아닌 ‘플랫폼 형태’로 기술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 대표는 “현재는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확장에 집중하는 시기”라며 “투자 유치를 통해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을 동시에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뒤를 구체적으로 그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시대”라면서도 “인디제이가 향하고 있는 지점만큼은 분명하다.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AI가 표준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 중심에서 인디제이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삼성 아트 스토어에 ‘아트 바젤 홍콩 2026’ 공개

주요 갤러리·작가 대표작 엄선...아트 마케팅 강화

삼성전자는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에 ‘아트 바젤 홍콩’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아트 바젤 홍콩 2026’에 참여하는 작가 20명의 작품 25점으로 구성됐다.

참여 갤러리는 뱅크, CLC 갤러리 벤처, 린앤린, 펄 램, 로시 앤 로시, 토미오 코야마, 베이컨시, 돈 갤러리 등 총 8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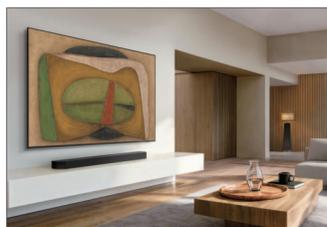
주요 작품으로는 독일 예술가이자 우주비행 훈련을 받은 마이클 나자르의 Europa (2016), 루이 비통 2024 프리플 컬렉션에서 니콜라 제스키에르

와 협업하며 주목받은 중국 작가 쑤이티엔의 Ken (2023)이 포함됐다. 또 독학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온 홍콩 현대 미술 작가 하빅촌의 Wheatfield A (1994)와 Untitled (1995)도 만나볼 수 있다.

중국 현대 미술의 흐름과 예술적 혁신을 조명하는 작품도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2026년 아트 바젤의 공식 디스플레이 파트너로서 아트 바젤 홍콩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2026년형 더 프레임 프로·마이크로 RGB-OLED 등 신규 TV 라인업을 통해 해당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부스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아트 바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아트 바젤 홍콩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다. 하빅촌의 ‘Wheatfield A’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젤 홍콩으로’를 주제로 마련됐다.

전시 부스에서는 아트 바젤 홍콩 컬렉션을 비롯해 해 운희, 윤종숙 등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지난해 12월 삼성 아트 스토어에 공개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이견희 컬렉션도 같이 선보인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 채용 ‘AI 진단·자격증 자동연동’ 도입

블라인드 위반 차단·편의성 개선

한국전력공사가 채용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소개서 점검 기능과 자격증 자동 반영 서비스를 도입하며 채용 절차 혁신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채용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AI 자가 진단 서비스’와 ‘네이버 인증 기반 자격증 자동 반영 서비스’를 채용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자기소개서 AI 자가 진단 서비스는 지원자가 작성 과정에서 지역명, 학교명 등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금지어 진단 결과와 면접관 참고용으로만 활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 실수에 따른 서류 탈락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됐다.

자격증 자동 반영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한전은 네이버와 협업해 지원자가 자격증 번호와 취득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인증만으로 관련 정보를 자동 불러올 수 있도록 했다. 12개 기관, 약 2700여개 자격증 정보가 연계돼 입력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다.

서비스는 상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된다. 해당 채용은 27일 오전 11시까지 한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송대용 기자